

정부, 계란 1000만개 구매 · 비축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안정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란 1000만개를 구매해 비축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살충제 사태로 인한 소비 하락으로 계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정부가 쌀 계란을 구매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계란 1000만개는 평년 1일 소비량의 25% 수준으로 정부 구매와는 별도로 민간 유통업체에서도 3000만개를 자율 구매해 비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해 7일 기준 산지가격은 사태 발생 전 대비 32% 하

락했다. 계란 산지가격은 10개 단위 기준으로 ▲지난달 14일 1781원 ▲16일 1727원 ▲25일 1388원 ▲9월 7일 1223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농협을 통해 11일부터 1주일간 500만개, 18일부터 1주일간 500만개를 각각 구매하고 구매 후 7일 이

후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계란 구매 및 방출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번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계란은 우선 구매하고 계란가격 급등락 시에는 구매 또는 방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신선란으로 시중판매가 되지 않는 계란은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1



보이스 피싱 막은 전북은행 직원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지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전북은행 직원이 있어 화제다. 11일 R금융그룹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전북은행 신도립 지점에 고객인 A(20대 초반)씨가 방문했다. 그는 박수현 계장에게 "2000만원의 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모두 외화 현찰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 계장은 불안해하는 A씨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자금 용도를 정중하게 문의했다. 하지만 A씨는 황실수실하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박 계장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 차분하게 A씨를 설득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켜 거래 중단 예방조치를 취했다.

사기범들은 A씨에게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나의사건조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사건 내용이 조회돼 많이 당황했고 두려움과 공포로 순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다"며 박 계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게돼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계장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 기여 직원에게 수여하는 금융감독원장 감사장을 받았다. /뉴스1

전주시 중소기업 추석선물 판매행사 진행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8~19일 8시 30분~6시 30분까지 시청 로비서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판매행사를 연다. 전주시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박순중 전주부시장)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에서 '배출 UP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전주시 중소기업 추석선물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이틀간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기술지원한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개 업체의 고기능성 제품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이번엔 판매되는 제품은 연구원이 기술지원한 제품을 중심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과는 다른 고기능성 제품이 주를 이룬다. 주요 품목은 기능성 천연 화장품과 마스크팩, 크림 등 뷰티제품과 프로폴리스 정류와 순대류, 액상차류, 잡곡류, 김스낵류 등 식품 등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한 중소기업은 매출이 향상돼 세계시장을 주도하

는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주시 순환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업들은 또 이틀간의 행사 종료 후에는 각 기업들이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아침밥을 굽는 전주시 소의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기부할 예정이다. 유강원 시장은 '연구원 지원 기업들

의 성과 홍보 및 중국발 사드 여파로 연구원에서 기술지원한 중소기업이 매출액 감소로 힘들어 하는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농생명 소재 개발과 산업화에서 국내 최고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전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행사에 이어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이용해 전주시청 등에서 '배출UP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홍보마케팅팀(063-711-10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김동연, IMF총재와 면담... 한국 경제 전망 · 협력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한국 경제의 전망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비공개 양자면담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와 '혁신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한국과 IMF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7~8일 서울에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IMF, 피터슨연구소(PIE)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 콘퍼런



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을 거쳐 2011년 7월 IMF의 첫 여성 수장으로 취임했다. /뉴스1

농민단체 "쌀값 대책, 박근혜정부때와 다르게 없다"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의회는 11일 쌀값 안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들어 쌀값 안정을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박근혜 정부 정책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쌀값이 폭락하자 '신곡 초과 수율'을 전량 구매한다면서 그럴싸하게 발표했지만 매입량이 형편없이 적을 뿐 아니라 가격이 폭락한 이후인 11월에 추가 매입이 이뤄지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값 대책도 박근혜 정부때 정책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실패가 검증된 사후대책이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생색용으로 매입량을 약간 늘린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며 "너구나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최자기로 지급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

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30년전으로 폭락한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오래된 8월말 쌀값은 지난해 동기보다 6.8% 하락한 13만 9000원(80kg)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확기 쌀값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책임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에게 있다"며 "올해 쌀값 목표를 15만원(1kg=1875원) 발한공기=1875원)으로 설정하면서 쌀값 보장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쌀값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이한 자세를 버리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쌀 수확기와 동시에 100만톤 이상 즉시 매입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뉴스1

현대자동차, 중형트럭 고객 초청 글램핑 이벤트 개최

청명한 가을, 현대자동차가 중형트럭 마티더, 메가트럭 고객에게 가족과 의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현대자동차는 10월 중 마티더와 메가트럭 고객 가족을 초청해 글램핑 이벤트인 'H:EAR-O Tour'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H:EAR-O Tour'는 평소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중형 상용차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작년보다 실시하고 있는 현대 상용차 고객 소통 프로그램인 'H:EAR-O'의 일환이다. 이번 'H:EAR-O Tour' 이벤트는 중형트럭 고객들이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낮 시간 동안에는 액티비티존

에서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야외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가족 문화 만들기, 가족 운동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자녀들이 자동차 공학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모비스와 함께 주니어 공학교실을 진행하고 자녀들의 교통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별도의 준비물 없이도 가족들과 편안하게 민잔을 즐길 수 있도록 바비큐 세트와 각종 캠핑 용품들이 제공되고, 무료이커 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민잔 중 버스킹 공연도 마련돼 있어 평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중형트럭 고객들이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